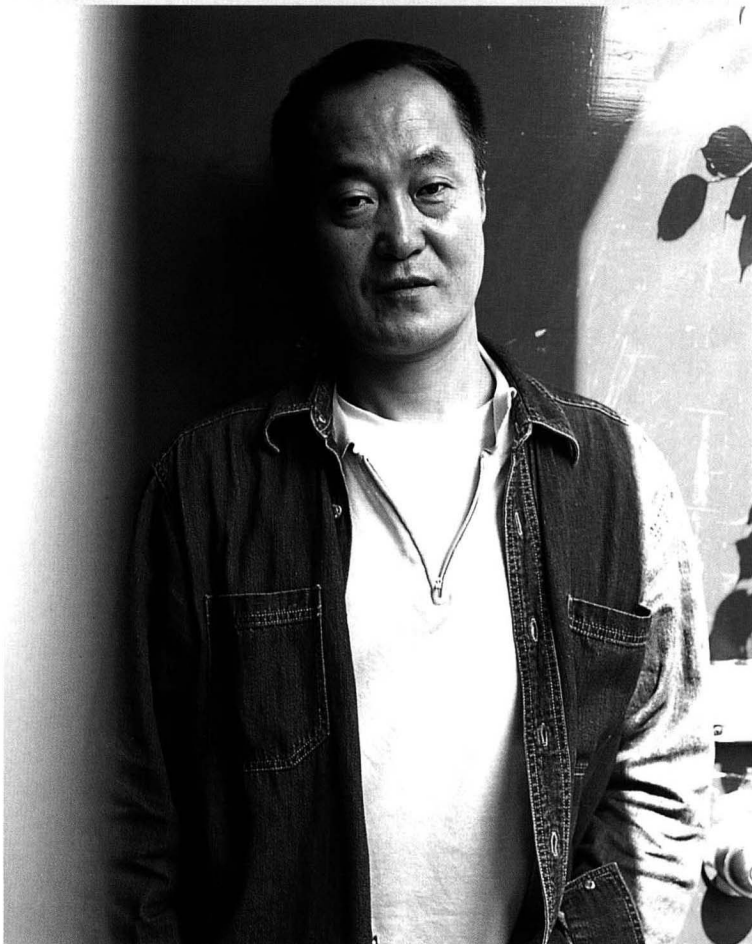


철학과 예술의 절묘한 블렌딩 B l e n d i n g

프로이트, 프로이트 식으로 색채를 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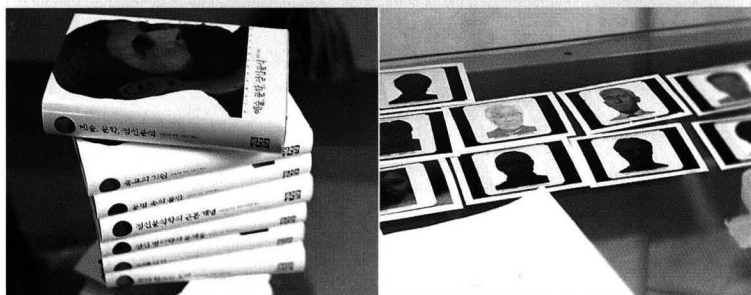
《프로이트 전집》(열린책들) 15권이 재출간됐다. 지난 1998년 스무 권으로 완간되어 학술출판의 새로운 면모를 보인 전집을 전면적으로 재편집해 새롭게 출간한 것이다. 학술적인 이용가치와 독자 편의를 높인 책의 편집도 돋보이지만, 청년에서 장년에 이르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일생을 색채 스펙트럼으로 펼쳐 보인 책의 표지는 《프로이트 전집》의 조형적 미덕 가운데 단연 으뜸으로 보인다. 《프로이트 전집》 각각의 책표지는 필터링된 사진이 아닌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완성된 '미술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책의 표지를 다시 볼 때마다 프로이트를 위한 색채탐구가 얼마나 진지했는지 저절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작품들은 프로이트가 거부했던 선형성 역시 거부하고 있고, 색채추출 과정과 그 배치가 무의식의 소산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이쯤 되면 책을 펼치지 않고도 프로이트를 얼마간 이해하

는 독특한 경험 또한 덤으로 얻게 되는데, 책 내용과 표지가 화학적으로 순응함을 알 수 있다.

《프로이트 전집》표지화 전체를 맡은 이는 모노크롬 포트레이트 연작으로 평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화가 고낙범 씨(43)다. 프로이트 인물초상 15점을 30호 크기의 유화로 완성하는 데 들인 시간은 6개월, 작품기획에만 두 달을 몰입해야 했다.

“프로이트는 사람을 디자인한 인물입니다. 정글과도 같은 인간의 무의식을 정리하여 존재의 틀을 새롭게 형상화했지요. 프로이트가 사람을 디자인했다면 그런 그를 내가 한번 디자인해 보자. 표지작품 제의를 받았을 때 흔쾌히 승낙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프로이트 사진이 워낙 옛날 것들이라 디테일한 면이 떨어져고 간혹 실루엣만 남은 것도 여럿 있어 작업이 힘들었습니다.”

고낙범 씨의 미술세계는 '색채탐구'로 정의할 수 있다. 명화名畵가 담긴 엽서에서 특징적인 색채를 추출, 색채바Color Bar를 구성한 초기작업은 '본질적이면서도 이상향으로서의 색채'의 의미를 여실히 보여준다. 위계와 상상의 수직 이미지를 버리고 수평 이미지로 색채바를 배치했는데 권위와 질서, 그리고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미술관을 엿볼 수 있다. 색채바 작업 이후 그가 시도한 작업은 극사실주의 인물초상화. 100호에서 150호 크기의 대형 작품들은 단색으로 표현된다. 작품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미지는 사라지고 색채의 무한한 변주만이 남게 되는데, 빛에 따라 달라지는 크로마의 신비로움이 미적 아우라를 경험케 한다. 그는 이러한 색채탐구를 통해 이곳과 저곳의 분명한 경계를 지운다. 색채바 작업을 통해 구



상과 추상의 개념을 지우고, 색채바 작업에서 파생된 모노크롬 극사실주의 인물초상화를 통해서는 스킨 컬러, 곧 이데올로기의 경계를 지우는 것이다.

《프로이트 전집》 표지작품은 그가 견지하는 미술세계의 연장이자 완결판이다. 한편 프로이트 무의식 개념을 이번 작업에 더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 또 다른 미술세계로 이해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이미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미지가 나에게 오는 느낌, 나의 코드를 건드릴 때 불현듯 떠오르는 색채를 선택했지요. 예를 들어 《정신분석학 이론》에 그려진 중년의 프로이트에서는 야심만만한 혁명가적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무슬리니를 보는 듯했죠. 그런 이미지와 이미지의 중첩 속에서 제가 선택한 색채는 레드였지요. 《꼬마 한스와 도라》의 프로이트는 제가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작업한 작품입니다. 여느 사진보다 프로이트의 이미지가 밝고 따뜻했는데 슬며시 머금고 있는 자애로운 미소를 보자 하늘색이 떠오르더군요.”

이렇게 해서 《프로이트 전집》 전체 15권에 담긴 프로이트 인물초상은 15가지 색으로 표현됐다. 프리즘에 걸러진 색의 스펙트럼처럼 적색에서 시작해 황색, 녹색, 청색을 거쳐 다시 적색으로 돌아오는 색의 향연은 프로이트의 일생과 정신세계를 파노라마로 펼쳐낸다. 프로이트가 고낙범 씨의 작업실을 방문했다면,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군’ 고개를 주억거렸을 것이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이미 보았겠지만, 책에 담긴 프로이트 인물초상은 연대기적 흐름으로 배치되지 않았다. 각기 다른 색채로 작업된 청년, 중년, 장년의 프로이트는 전집의 순서와 상관없이 마구 뒤섞여

있는데, 고낙범 씨는 선형성을 거부하는 프로이트식 사고를 따라 책의 내용, 연대기적 흐름에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배치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어떠한 정신적 기원 속에 이루어진 무의식의 발현인지, 전집 속을 파고 들어가 “프로이트에게 한번 물어 볼 일” 이란다.

“모노크롬 인물초상화를 시작하면서 정작 지금까지 제 얼굴을 그려본 적은 없습니다. 인물초상화의 모델은 대개 저와 가까운 이들을 선택하는데, 그들을 그려내며 객관화된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제 이름 가운데 낙樂자가 한문으로 즐거움이요, 음악이요, 더하여 악기라고도 풀이된답니다. 악기의 역할로 즐거움만 전하라는 운명이 담긴 이름 같아요.”

프로이트 연작 이후 그는 문학과 미술을 긴밀히 연결시키는 또 하나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미술사를 말하는 책도, 도록도 아닌 독특한 한 권의 책을 준비중인데, 미국 작가와 일본 작가, 그리고 소설가 조문경 씨가 현재 공동 작업중이다. 그의 작품과 함께 소설과 에세이, 미학에 관한 글로 구성될 책은 올해 연말쯤 출간될 예정이다.

한편 순수예술작품으로 표지화 전통을 훌륭히 이었다는 호평 속에 그는 요즘 많은 출판사로부터 작업제의를 받고 있다. 프로이트 연작 이후 어떤 작가의 인물초상을 준비중이냐고 물으니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라며 마른웃음을 웃는다. 집요한 물음 끝에 얻은 정보가 있다면 이번 작업은 국내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 책의 내용도 작품도 ‘아직은 비밀’이지만 책과 미술작품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풍경은 그로 인해 계속된다. ■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고낙범의 색채탐구를 볼 수 있는 전시

프로이트 초상 연작展

장소 _ 서울 통의동 열린책들 갤러리 'The social'

일시 _ 2003년 10월 15일~11월 15일

문의 _ 02.738.0351